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 and the Making of Our Times
Odd Arne Westad, 200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손병권

chapter 9. The 1980s: The Reagan Offensive

* 레이건은 데탕트가 미국의 개입을 봉쇄하고 소련의 개입을 유도하여 제3세계에서 혁명을 통한 좌파정권의 등장을 유도했다고 보면 이를 강력하게 비난함

<The Third World fragmentation and the origins of the Reagan offensive>

* 제3세계 역시 1980년대에 오면 분열함

- 원재료 수출 국가들인데 경쟁력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 간의 구별이 있음 -> 내적 분열

- 동구를 모델로 한 집단주의적 경제체제가 실패하면서 좌파정권에 위기가 옴 -> 내부적으로 우파 반군이 활성화됨 + 내적으로 부족갈등이 생김

* 제3세계의 경제 역시 상당히 피폐해 짐

* 소련 역시 상당히 곤궁한 경제상황에 처함 -> 국내경제의 해결과 대외 제3세계 지원에서 어려움을 맞이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이건 집권 이후 미국은 소련의 세력팽창을 방지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개입정책으로 나아감 -> 그러나 베트남 전쟁 신드롬으로 인해 각국의 반공세력을 활용하는 covert한 방식을 취함

* 레이건 행정부 내 강경 소수세력(네오콘)은 온건 다수세력의 주장(니카라과아 산디니스타의 제거는 남미의 혁명세력이 상당히 줄어든 이후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댓가가 클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지금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제3세계 개입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봄

<The war in Nicaragua>

* 소모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신뢰철회와 산디니스타의 집권 -> 산디니스타는 국유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인근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추구함 -> 혁명적 국제주의 ->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지원

* 미국 개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지원을 통해 미국에 대한 진정한 니카라과의 독립을 보여주하고자 함

* 제3세계 개입정책을 자제한 소련은 니카라과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관망의 자세를

취함

- * 이후 소련과 동독 등이 니카라과에 미국의 위협이 증가하자 군비를 지원해 줌
- * 집권 이후 레이건은 비록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했지만 니카라과에 대한 관점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음 -> 국민의 복지를 무시하는 독재국가 및 혁명 수출국가로서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됨
- * 케이건(Robert Kagan)이나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 같은 네오콘들의 득세 -> 1983년 그레나다 침공 -> 혁명에 대한 미국역공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봄
- * 니카라과 콘트라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터지면서 개입주의에 제동이 걸림 -> 그러나 네오콘이 지닌 선악의 대결이라는 냉전적 사고는 이로 인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The war in Afghanistan>

- * PDPA의 지도자 카르말(Karmal)은 결코 소련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지만은 않고 내부의 분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함
- * 파키스탄에 근거한 무자헤딘을 중심으로 한 PDPA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이슬람주의 하에서 파키스탄, 기타 아랍국가, 미국의 지원을 받음
- * 그러나 무자헤딘 세력도 분열되어 있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PDPA와 소련은 이슬람교에 대한 불경스러운 존재로서 아프간 사람들 사이에 각인되어 있었음
- *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소련군의 철수를 원했으나 군부와 KGB는 이와 생각이 달랐으며, 소련이 추구한 미소협력 하의 아프간-파키스탄 간 합의는 소련의 팽창주의라는 세계적 인식 속에서 잘 성사되지 않음
- * 파키스탄의 지아 울 하크(Zia Ul Haq)는 아프간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이슬람주의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소련에 저항함
- * 미국은 아프간 반군으로는 소련의 저항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아의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증대함

<The United States and the jihad>

- * 1983년 이후 그레나다 침공과 무자헤딘의 저항력 등이 미국 내 네오콘의 입지를 강화시키

면서 아프간 반군 지원론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득세함

* 소련은 많은 인명손실과 현상유지의 불투명성, 그리고 카르말의 무능과 공산당 분파의 이반과 타 지역으로의 도주 등으로 아프간 주둔이 점점 더 어려워짐

<Aid, trade, and ideology>

* (356) 왜 미국은 제3세계에 개입하는가? 소련이 사주하는 혁명은 미국의 자유라는 가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보에 위협임 -> “To many within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the US neoconservative movement, and on the American Right in general, **Third World left-wing radicalism was part of a global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 existed, however, mostly because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d failed to confront it and stand up for American values....It was time, the American Right argued, to strike back against Third World regimes that opposed America’s mission.

* 냉전과 대소봉쇄 그리고 제3세계 개입은 -> 레이건에 의하면 “climactic struggle for the human struggle”

* 권위주의 정부와 전체주의 정부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발전론자의 오류인데 전자는 내부적으로 개선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네오콘 커크 패트릭의 의견

* 이러한 제3세계 개입은 이들에 대한 경제지원에 있어서 강력한 조건의 제시와 함께 나타났으며 1980년대 초 경제불황은 원재료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면서 제3세계에 타격을 미침

* 워싱턴 컨센서스의 등장으로 강력한 시장경제를 미국은 제3세계에 강요해 나감 -> 그러나 정작 미국 국내경제는 군비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대하는 등 자신이 국제적으로 추구한 경제모델과 역행함

* 제3세계는 이제 동구모델을 포기하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장경제 모델에 매력을 느낌

* 소련의 아프간 전쟁 후유증, 국제적 고립, 국내경제침체, 제3세계의 경제피폐와 동구권 경제모델에 대한 환멸 및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동경, 그리고 미국의 제3세계 개입주의와 반혁명론 및 국제금융기구의 압력 등으로 제3세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미국의 승리가 귀결됨

chapter 10 The Gorbachev withdrawal and the end of the Cold War

* 미국의 공세는 실은 제3세계에서 소련이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Gorbachev's offensive>

* 초기 고르비는 1980년대 초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구조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만든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봄

* 또한 고르비는 소련의 제3세계 정책 실패가 객관적 조건에서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산당과 소련의 실책이라고도 판단함 -> 이러한 실패는 소련의 국내정책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봄

* 객관적인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명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3세계의 혁명을 추구한 소련 전임지도자의 실책은 고르비는 비판함
-> 제3세계 공산주의가 진보적인 부르주와와 연합하여 행동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실책은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않아서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고르비는 무한히 병력을 투입하는 대신 공세를 펼치면서 일정한 틀 내에서 퇴로를 찾고자 함

* 카르말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개혁을 요구함

* 미국에 대해서는 제3세계의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킴

-> 기본적으로 제3세계에 대해서 마르크스적인 세계관을 고르비는 지니고 있음

-> 즉 미국은 제국주의 세력이면 제3세계 사회주의 정권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세력

* 그러나 고르비의 이러한 세계관과 미국과의 그의 데탕트 희망 간에는 긴장이 있었음

* 그러나 여전히 고르비는 제3세계에서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잃는 방향으로 미국의 혁명수출 및 팽창 비난 주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음

<Out of Afghanistan>

* 그러나 결국 그의 새로운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고르비는 아프간 철군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때 철군에 유리한 조건이 등장함

1. 아프간 병력증파는 개혁.개방에 불리하다는 현실인식
2.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미국 개입주의에 제동
3. 아프간의 카르말의 실각과 나지블라의 등장

* 마침내 1989년 2월 15일까지 소련군 철군 결정 -> 제네바 협정에 이름

* 자국민은 굶주리는데 제3세계에 혁명을 수출한 소련지도부와 소련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징이 됨

* 이후 1992년 PDPA가 해체되고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무자헤딘의 일파인 탈레반이 1996년 아프간을 장악함

<The causes of the Soviet withdrawal>

* 소련에 대한 실망은 소련 내에서도 소비에트 체제가 아닌 다른 민족적 등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

*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제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이슬람주의로 복귀함

* 철수의 장기적 원인

1. 제3세계 정책에 대한 소련의 사고방식 변화
2. 소련의 내부경제의 어려움(원자재 수출가 하락 등)
3. 아프간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와 소련내부의 비판

*철수의 직접적 원인

1. 아프간 철수 주장이 언론이나 학자 등을 통해 주장되어 고르비의 참모에까지 이름
-> 개혁.개방과 함께 매우 다양하게 분출된 비판; 제3세계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계급투쟁보다 종족갈등이 심하다는 등의 비판)
-> 1990년 최고소비에트 과정에서 인민의 제3세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지원이 대폭 삭감됨
2. 제3세계에서 미국의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고려 -> 미국의 공세를 무력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를 느낌
3. 레닌에 대한 고르비의 이해와 이에 따른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한 고수

* 소련은 타협을 원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함

<The end of the Third World>

* 제3세계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의미를 잃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세계로서 세계화가 진행됨

Conclusion: Revolution, intervention, and great power collapse

* 미소의 제3세계 개입으로 특징되는 냉전은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열강이 추구가 식민주의와 비슷함 -> 자국의 시스템을 식민지에 이식함

* 이들의 개입은 제3세계를 지속적인 내전으로 몰고 감 -> 제국주의 시대 당시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됨

* 제3세계의 수입된 냉전은 농민(peasants)를 없애는 것이었으나 이들은 이러한 국가의 시도에 대항하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으며, 이는 식민주의 당시와 마찬가지로였음
-> 중앙정부의 탄압은 물리적이며 동시에 문화적인 것(언어, 종교, 교육제도의 변경 수반)이었음

* 그리하여 농민들은 근대성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정체성주의의 경향을 보임(identitarianist)
-> 사회주의와 미국화에 저항하면서 국가권력의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테러주의세력이 되며 국가를 구성할 경우 새로운 갈등의 원인인 파시즘으로 나타남(저자는 냉전의 후유증으로 테러리즘을 보면 근대에 대한 저항으로 파악하는 듯)

* 소련 붕괴의 원인

-> 실제로 제3세계 개입의 비용은 미미했음

-> 문제는 엄청난 금액의 지속적인 군비지출과 원자재 수출의 부진이었다

-> 그러나 1980년대말 개혁.개방과정에서 소련 국민이 아프간 등 제3세계의 무용한 전쟁에 대해서 알면서 소련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소련은 붕괴했음

* 결국 제3세계에서 소련의 실패는 국내 실패에 대한 미리 이미지였음 -> 아프간 개입 실패 등 제3세계 개입의 실패는 소련붕괴의 촉발기제였을 수 있음

*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세기는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미국은 세계에서 시장, 자유주의 등을 수출하며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그 과정에 수반된 미국 외교의 폭력성을 간과하게 해서는 안 됨

* 미국화 이후 세계는 평화와 발전을 누리는 듯했지만 잊혀진 제3세계의 빈곤과 갈등은 여접 지속됨

* 이것이 9.11일 낳고 결국 미국의 개입주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냉전 당시의 개입주의와 다르지 않음

-> 세계를 시장과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미국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변화하지 않음

* 미국의 개입주의는 사라질 수 있는가?

->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 미국의 해외개입과 전쟁으로 국내문제의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반개입주의는 강화될

수 있음(406)

* (406)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은 국내 민주정치에 왜곡을 가져온다(예: 부시당시?)

* Without a genuine reorientation of its foreign policy, American democracy may end up suffering the same fate as Soviet Socialism(406) -> (??? 부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듯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국제주의에 유보적인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왜곡이 오고 있는 반대현상이 나타남)

* 일방적인 이념이나 체제를 강요할 경우 세계는 갈등을 경험할 뿐이며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